



국가생존기술 글로벌 리포트

2022년 3월 17일 제2호

웹사이트에서 보기



물

바다를 질식시키는 화학 오염

바다의 많은 부분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양생물을 위협하고 기후변화를 가속시킨다. 1960년대 이후 산소가 부족한 대양의 범위는 대략 유럽 연합의 면적만큼 증가해왔다. 연안 해역에서 500개 이상의 저산소 대역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죽은 지대(dead zone)"는 물고기의 대량 살상을 유발한다. 원인은 육지에 서부터 시작되는 화학 오염에 있다.

출처: <https://www.economist.com/films/2022/01/06/how-chemical-pollution-is-suffocating-the-sea>



자원

자원재생지원 기술로 생태계 복원

ANR(Assisted Natural Regeneration) 기술로 토지에 대한 현지 지식을 사용하여 나무의 자연적인 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브라질의 대서양 산림과 코스타리카의 몬테 알토 보호구역에서는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원을 가속화했다. 3월 29일 개최되는 세계자원연구소(WRI) 웨비나에서 ANR로 농촌, 기후, 생물다양성 등의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공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wri.org/news/advisory-press-call-assisted-natural-regeneration-ecosystem-restoration>



재난

체르노빌 참사 상기시키는 러 공격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공격이 1986년 체르노빌 참사*를 연상케 한다. 이는 방사능 유출 위험이 최악의 인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포리자 원전은 원자로가 격납용기와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체르노빌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포탄과 같이 폭발성 물질에 견디도록 설계되지는 않아 핵재앙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출처: <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boris-johnson-science-business-europe-2167e4687c2f80bc0383feb266d8b085>



안보

美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미래 사이버 위협 대응 솔루션 구현에 박차

해외 정보 및 방첩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17개* 정보기관들의 협의체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는 최근 중요 인프라 및 통합시스템을 표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 솔루션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급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ZTA) 및 첨단 ISR(지능형 감시 및 정찰)을 포함한 많은 솔루션의 구현과 활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가안보국, FBI, 국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마약단속국, 각군 정보사 등

출처: <https://www.defenseone.com/insights/cards/intelligence-community-operations-countering-future-threats-advanced-solutions/?oref=newsletters>



식량

불량 쌀이 대안으로.. 식량 공급 우려

밀과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동물 배급용 저품질 쌀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항구를 폐쇄하고 서방이 러시아 수출을 제재함에 따라 지난 주 시카고 밀 선물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도정 과정에서 낱알이 부서인 불량 쌀은 현재까지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됐지만 밀 가격이 치솟으면서 밀의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각국은 식량 안보에 주목하고 있다.

출처: <https://www.reuters.com/business/strong-asian-rice-de-mand-animal-feed-sparks-food-supply-worries-2022-03-16/>



에너지

우크라이나戰 이후 EU에너지정책

석유와 LNG의 급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U 에너지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외부적인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Green-deal 모델에서 기후 중립성이 달성되는 동안 저렴하게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변경할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원의 수입을 제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자립적 에너지 안보 필요성을 주장한다.

출처: <https://www.energymonitor.ai/policy/green-deals/mission-readies-eu-energy-rethink-following-ukraine-war>



인구

팬더믹 심리적 후유증 대응 나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고립, 사망 및 기타 혼란으로 인해 정서적 웰빙이 악화되면서 아동기의 우울증, 자살, 불안 등의 정신 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3,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 내 자살 예방 프로그램, 학교 내 상담, 정신병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https://news.yahoo.com/white-house-seeks-to-address-childhood-mental-health-crisis-170017717.html?guccounter=1>